

# 피로한 현대인에 '면역력 UP'... 차별화 원료 건기식 뜬다

지류 '씨케이 밸런스 더블업' 6년근 인삼+참당귀 '4중복합 건기식'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브링 위엔포스' 감초 추출물로 NDI 10개 항목 효과 웅진식품 '알로에겔 면역젤리' 면역력 높이고 장·피부건강 도움



지류 '씨케이 밸런스 더블업'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브링 위엔포스'



웅진식품 '알로에겔 면역젤리'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기능성 원료의 차별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건강기능식품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건강 관리를 도울 수 있는 품목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건강 관리와 면역력 유지 등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추세에 따르면 작년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약 5

조원에 달했으며, 2030년까지는 2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에 웰빙 트렌드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건기식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종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기존에 쉽게 볼 수 있었던 제품뿐만 아니라 인삼, 감초, 달팽이 점액질 등 기능성 원료의 차별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직접

판매 유통기업 지류는 국내산 6년근 인삼과 참당귀 추출 분말이 주원료로 함유된 '씨케이 밸런스 더블업'을 지난 1월 선보였다. 씨케이 밸런스 더블업은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 인지능력 향상,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중 복합 기능성 식품이다. 해당 제품에 포함된 인삼은 사포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체의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준다. 당귀추출물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 '당귀'의 뿌리에서 얻은 원료로 관절 건강, 인지능력 향상 등에 탁월하다. 또한 지류 모회사

인 제너럴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발효 미생물 공정 기술(MEBT)' 기술이 적용돼 체내 흡수율을 한층 더 높였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지난달 '브링 위엔포스'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위엔포스에 주원료로 적용된 감초추출물은 원활한 신진대사 및 신체 균형 관리에 탁월한 원료로 알려졌다. 위 건강 관련 지표(NDI) 10개 항목(상복부팽만감, 상복부 통증, 트림, 복부팽창, 조기 포만감, 메스꺼움, 구토, 역류, 속 쓰림, 식욕 부진)에서 개선 효과가 있다.

웅진식품은 지난 2월 '알로에겔 면역

젤리'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수확 후 6시간 이내 1차 가공한 신선한 3년산 알로에를 담았으며, 진공 저온 농축법으로 농축해 다당체 10mg을 함유하고 있다. 청포도 농축액과 레몬 농축액으로 달콤상큼한 맛을 더했으며 스틱 젤리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알로에에 풍부하게 함유된 면역다당체는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적합하며, 장,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알로에는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를 활성화에 우리 신체에 있는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원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계기로 소비자들의 면역력, 피부 등의 건강 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여 업계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재료를 활용한 건기식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다양한 건기식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체질, 건강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에스티팜, 美에 신약개발 바이오텍 설립

'레바티오 테라퓨틱스' RNA 등 신기술 플랫폼 활용

에스티팜은 미국 샌디에이고에 RNA A 및 CAR-NKT 신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텍인 '레바티오 테라퓨틱스'를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

에스티팜은 레바티오 설립을 통해 기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mRNA 유전자치료제 위탁생산·개발(CDMO)의 경험을 토대로 세포치료제 분야의 신약개발 및 CDMO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샌디에이고는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소와 아이오니스, 앨나일랩 등의 바이오텍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 활발한 공동연구와 기술수출 협의도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레바티오는 원형 RNA 및 CAR-NKT 플랫폼을 구축하고 면역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형 RNA는 선형 mRNA에 비해 반감기가 2.5배 길고 안정하다. 최근 원형 RNA와 암, 알츠하이머 등의 질병간 연관성 증거가 계속 밝혀지면서 원형 RNA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원형 RNA 항암제를 개발하는 미국 오르나 테라퓨틱스는 1억달러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NKT는 T세포와 NK 세포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면역세포다. 기존 CAR-T 플랫폼 치료제는 환자 개인별 맞춤형 생산으로 대량생산이 어렵고 높은 비용이 단점으로 꼽힌다.

## 마스크 등 생활화에 독감 입원율 80% '뚝'

삼성서울병원, 코로나 전후 비교분석 폐렴 53% 등 호흡기질환 입원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활방역으로 독감으로 인한 입원이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허경민 교수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위생 등의 생활방역이 시행된 이후 주요 호흡기질

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낮아졌다고 5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월~7월간, 4가지 주요 호흡기 질환(폐렴, 독감,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과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입원율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방역조치 시행 기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유행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

렴으로 인한 입원은 100만명당 1872.59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 4년간 같은 계절의 평균인 3965.29명에 비해 53% 감소했으며, 독감으로 인한 입원도 80% 가량 감소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4년 평균 100만명당 435.11명에서 251.70명으로 42% 감소했으며, 천식 역시 100만명당 353.16명에서 168.13명으로 52% 줄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호흡기 질환 관련 저명 학술지 '홍부'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광동제약 '체지방 감소' 효과 신물질 확보

부산대 등 2곳과 기술이전 협약 적은 용량으로 효과, 부작용 줄여

광동제약이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확보, 비만 관리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선다. 적은 용량으로도 체지방 감소 효과가 높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 기대가 높다.

광동제약은 부산대학교 및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신소재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광동제약은 '비만예방 또는 치료용 신소재 및 이의 추출물'에 대한 특허와 '신소재를 종자 및 재배' 기술이전에 대한 권리 일체를 인수했다.

해당 신소재는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신규품종에서 추출됐다. 연구진에 따라

면 동물실험 결과 다른 항비만 기능성 원료 대비 낮은 농도에서도 체지방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또 비만동물모델 대상 항비만 효과 측정결과, 체중 및 복부피하지방 감소와 간조직, 지방세포의 지방축적억제 효과를 보이면서도 간과 신장의 부작용은 거의 없어 항비만약 약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광동제약은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이 신소재 추출물 기술을 적용한 '체지방 개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상품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이세경 기자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이사(왼쪽)와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가 지속가능 친환경 패키징 원료 개발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 아모레퍼시픽 '친환경 포장재' 개발 나서

한솔제지와 업무협약 체결

아모레퍼시픽과 한솔제지는 지난 2일 울산구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지속가능 친환경 포장재 및 원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대체재 개발을 공동 목표로 하며, 기존의 화학유래 원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화장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포장재에 친환경 신소재를 적용해 100%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용기를 개발

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화학유래 성분을 천연유래 성분으로 대체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이런 가운데 아모레퍼시픽과 한솔제지가 함께 진행한 사전 공동 연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무에서 유래한 셀룰로오스 성분으로 대체하면 높은 생분해성을 갖추면서 기존의 천연유래 원료들보다 화장품의 안정도를 높이고 사용감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CJ그룹, 스타트업 지원 '오벤터스' 참가기업 모집

CJ그룹이 스타트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오벤터스' 4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창업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벤터스' 4기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소 등을 발굴해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 ENM 등과 공동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5월 7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푸드테크 ▲물류 ▲엔터테이먼트 등 총 3개로, 최대 8곳의 기업을 선정해 팀당 10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

별도로 사업성과와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인 '데모데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상 1팀에게는 1000만원, 최우수상 2팀에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창업조경제혁신센터 입주공간 선정 가점, 신용보증기금 추천 가점, KDB산업은행 스페셜 IR 데이 피칭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